

KOTRA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일일 동향 보고

- 8.10(월), 코로나19 비상대책반 -

서남아지역본부

□ 현지 정부 대응 정책 동향

국가 (무역관)	내용				
인도 (뉴델리)	□ 현황 (총 2,215,074명 확진, 188,000명 신규확진, 44,386명 사망)				
	연번	지역	누적확진자	신규확진자	사망
	1	안다만&니코바르제도	1490	367	20
	2	안드라프라데시	227860	31071	2036
	3	아루나찰프라데시	2155	207	3
	4	아삼	58837	6020	145
	5	비하르	79451	11663	387
	6	찬디가르	1515	188	25
	7	차티스가르	12148	1216	96
	8	다드라나가르하벨리	1564	173	2
	9	델리	145427	3896	4111
	10	고아	8712	1098	75
	11	구자라트	70965	3266	2652
	12	하리아나	41635	2332	483
	13	히마찰프라데시	3371	324	15
	14	잠무&카슈미르	24897	1443	472
	15	자르칸드	18138	2382	177
	16	카르나타카	178087	19833	3198
	17	케랄라	34331	3882	108
	18	라다크	1688	93	9
	19	마드야프라데시	39025	2461	996
	20	마하라슈트라	515332	35553	17757
	21	마니푸르	3753	536	11
	22	미조람	620	81	0
	23	메갈라야	1062	72	6
	24	나갈랜드	2781	201	8
	25	오디샤	45927	5210	272
	26	푸두체리	5382	761	87
	27	편잡	23903	3012	586
	28	라자스탄	52497	3501	789
	29	시킴	866	37	1
	30	타밀나두	296901	17757	4927
	31	텔랑가나	80751	5494	637
	32	트리푸라	6208	355	42
	33	우타라칸드	9632	1080	125
	34	우타르프라데시	122609	13635	2069
	35	웨스트벵갈	95554	8800	2059
	-	총계	2215074	188000	44386
*인도보건복지부 통계 8월 10일 오전 8시 기준					
*음영처리된 지역은 상위 1-10위에 포함되며, 다수 무역관 인근 및 주재지역					

국가 (무역관)	내용
	<p>○ 인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 사흘 연속 6만 명 대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 7일(금) 이후 6만 명 대를 웃돌며 금일 기준 총 2,215,074명(보건복지부) 기록 - 완치율은 69.33%로 상승하였으며, 9일(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인도가 6만2천117명으로 미국과 브라질을 앞선 1위 수준 <p>* 일일 확진자 수: 미국(47,849명), 브라질(22,213명) (Worldometers, 8.9)</p> <p style="text-align: right;">*Hindustantimes https://bit.ly/30MPQJX 08.10</p> <p>○ 인도정부, 학교 및 교육 시설 운영 재개 시점 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기존 8월 31일(월)로 예정되어있던 학교 및 교육 시설 정상화 시점을 내달 1일(화)로 연기 - 운영 재개 이후부터 11월 14일까지 순차적 등교가 이루어질 것이며, 일과 시간은 6시간 이내로 제한 (31일(월) 세부 지침 발표 예정) <p style="text-align: right;">*OneIndia https://bit.ly/2DU28qz 08.07</p>
인도 (벵갈루루)	<p>○ 카르나타카州政府, 벵갈루루 도착 국내선 탑승객 대상 지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벵갈루루행 국내선 탑승객의 경우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이행 및 州政府 포털 Seva Sindhu에 개인정보 등록 후 모바일패스(e-pass) 발급이 필수이며, 세부적인 자가격리 기간*은 탑승객의 출발지역별로 상이함 <p>* 마하라슈트라發 탑승객: 7일 시설격리, 7일 자택격리</p> <p>* 델리·타밀나두發 탑승객: 3일 시설격리, 11일 자택격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입국자의 경우 또한 입국 예정일 72시간 전 州政府 포털 Yatri Karnataka에 사전등록해야 하며, 모든 유증상 탑승객은 검사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예정 <p style="text-align: right;">*Livemint https://bit.ly/3gHLAAI 08.10</p>

국가 (무역관)	내용
<p>파키스탄 (카라치무역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일 17:00시 기준 284,424명 (사망자 6,09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드주(123,849), 펀자브주(94,360), 이슬라마바드(15,241) 등 - 7월 말부터 일일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낮아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드올아즈하(7.31-8.2)의 여파 주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확진자(명) (7.22) 1,763 → (7.29) 1,114 → (8.2) 330 → (8.7) 842 - 이드올아즈하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다시 일일 확진자 1,000명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추세 - 확진자 감소 이유로 스마트 봉쇄(핀셋봉쇄), 검사량 감소 (검사 기피), 정무적 통계관리, 집단면역* 등 다양한 논의가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 보건당국은 조사 결과 이슬라마바드 지역 인구의 15%인 300,000명이 이미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발표(7.17) * 파키스탄 공식 검사 누적 수는 2억이 넘는 인구에 비해 208만 건에 불과 ○ 정부, 코로나 확산억제 관련 통제조치 대부분 해제(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봉쇄와 함께 진행해 온 다중이용 시설(식당, 영화관, 체육관, 놀이공원 등) 이용 통제 해제 조치 - 이드올아즈하 이전에 공표했던 스마트 봉쇄 조치의 조기 완화 등과 연계되어 추진 -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일상적인 일상생활의 정상화 재개 - 그러나 학교는 9월 15일까지 개학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 정부발표, Express Tribune 등 주요 언론 ○ 파키스탄 국립혈액질병연구소(NIBD), 파키스탄 최대의 도시인 카라치의 집단면역 단계로의 진입 가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FDA 인증보유 항체검사 키트로 시행한 조사결과 발표 - 7월말 셋째 주 기준, 카라치 인구의 40%가 코로나19에 감염 되었으며, 9월 첫째 주까지 카라치 인구의 65~70% 감염 가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National Institute of Blood Diseases (NIBD), The News 등 현지 언론

국가 (무역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 민간항공국(CAA), 전국적으로 국제선 및 국내선 운항 전면 허용 (8.9~) 파키스탄 내 모든 공항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라치,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등 일부 공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파키스탄 전역 모든 공항에서 가능하도록 조치 - SOPs에 따라 승객이송, 국제화물 및 특수비행 작업 등 전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 민간항공국(CAA) ○ 외국인의 입국관련 실질적 통제 완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PCR 음성판정서를 보유하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없을 경우,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없이 정상활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자가격리(호텔 등) 필수 - 외교부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파키스탄의 조치현황에 적시된 검역강화 공식내용(무증상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의무화)과 실제 관행 간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 - 공관과 논의 결과, 파키스탄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 실제 관행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공지하는 차원에서 입국제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 여부 검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라치 무역관(현지 정부관계자 인터뷰)

□ 주재국 현지기업 동향

국가 (무역관)	내용
인도 (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 자사 서비스 통합 플랫폼 출시로 활용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일(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 제공 서비스를 통합한 '아마존 이지(Amazon Easy)' 플랫폼을 출시하였으며, 동 플랫폼을 통해 터치 앤 필(Touch and feel) 방식의 제품 확인, 주문 및 배송 신청 등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국가 (무역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 인도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아마존 이자’를 통해 약 3억 명의 소비자 유치, 지역 고용 창출 등의 효과 기대 *Business Standard https://bit.ly/2PCTVJY 08.09 ○ 펍시 인도법인, 우타르프라데쉬주 생산공장 투자액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일(토)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펍시 인도법인이 기존 우타르프라데쉬주 소재 생산공장에 투자 예정인 약 6천7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액을 약 1억6천8백만 달러 규모로 증대 - 이와 더불어 펍시는 현지 농업 종사자로부터 11만 8천 톤의 감자 조달 및 1천5백 건 이상의 고용 창출 등 지역 발전에 기여 예정 *Business Standard https://bit.ly/3fFUmOx 08.08 ○ 애플,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2분기 출하량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일(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의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 증가하였으며,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은 '19년 2분기 41.2%에서 금년 48.8%로 증가 - 이는 경쟁 기업의 출하 연기, 반증정서 및 2분기 제품 출시로 출하량 미집계 등에 대한 영향으로 판단 *Livemint https://bit.ly/33JKBwo 08.09

□ 현지 진출 국내기업 동향

국가 (무역관)	내용
인도 (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2분기 인도 전체 휴대폰 시장 1위 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일(일) 시장조사회사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인도 전체 휴대폰 시장(스마트폰과 피쳐폰 포함)에서 2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 탈환 - 스마트폰 시장 기준으로는 1위인 샤오미(29.4%)에 이어 2위를 유지했으나, 1분기(15.6%)에 비해 크게 상승한 26.3% 기록 * 3위: Realme(9.8%), 4위: Oppo(9.7%) *Moneycontrol https://bit.ly/3iCRrYT 08.09

국가 (무역관)	내용
파키스탄 (카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 오는 11일(화) 파키스탄 시장 내 첫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일(토)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8월 11일(화) 오후 7시 30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 공식 출시 예정 - 현대차는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파키스탄 최초의 가상 신차 출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아차와 도요타 등과 경쟁 전망 <p style="text-align: right;">*DNDI https://bit.ly/3iozvks 08.08</p>

□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국가 (무역관)	내용
인도 (벵갈루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220억 달러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정부 정책 싱크탱크(NITI Aayog)에 따르면, 인도는 코로나 19 기간 동안 22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기록 * 2020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인도는 해당 평가에서 63위를 차지하였으며, 1년 내 상위 5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 Financial Express, 8.8.</p>
인도 (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정부, 농업 인프라 분야 관련 133억 달러 규모 펀드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지난 9일 농업 분야 스타트업, 농업기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펀드(Agriculture Infrastructure Fund) 출시 - 해당 펀드는 향후 10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수혜자에게 약 3%의 이자 보조금 제공 및 최소 6개월~최대 2년의 상환 기간 설정 가능 *Economietimes https://bit.ly/3gVmSwI 08.10 ○ 인도정부, 방산 품목 101건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일(일) 인도 국방부는 헬리콥터, 대포, 훈련기 등을 포함한 101

국가 (무역관)	내용
	<p>건의 방산 품목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 발표</p> <p>- 동 정책은 2024년까지 유지되며, 이로 인해 향후 7년간 약 534억 달러 규모의 주문 국산화 예정</p> <p style="text-align: right;">*Economictimes https://bit.ly/31A64VP 08.10</p>
파키스탄 (카라치)	<p>○ 2019/20 회계연도 경상수지 적자는 5년만의 최저 수준 시현</p> <p>- 2018/19 회계연도 대비 78% 크게 감소한 29억 달러 기록</p> <p>- 상품수출은 243억 달러에서 225억 달러로 7% 감소했으나, 수입이 519억 달러에서 424억 달러로 18% 이상 감소 (수입시장 경색 심화)</p> <p style="padding-left: 20px;">* 상품무역적자는 276억 달러에서 199억 달러로 28% 감소</p> <p>- 게다가 해외노동자 송금(Remittance)이 217억 달러에서 231억 달러로 14억 달러 증가하여 경상적자 감소에 기여</p> <p style="text-align: right;">* 파키스탄 중앙은행, The Express Tribune 등</p>

/끝/